

이즈미 신사

스이젠지 조주엔 정원의 북서쪽 모퉁이에 위치한 이즈미 신사는 세이난 전쟁으로 인해 구마모토시의 광범위한 지역이 소실된 이듬해인 1878 년에 창건되었습니다. 세이난 전쟁으로 허허벌판이 된 도시를 재건하고자 옛 구마모토번의 가신들이 240 년 넘게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주었던 호소카와 가문을 모시는 신사를 창건했습니다.

이곳에 모시고 있는 주요 신은 히고 호소카와 가문의 초대 당주인 호소카와 후지타카(1534-1610)와 아들 호소카와 다다오키(1563-1646), 그리고 다다오키의 아들이며, 구마모토번의 호소카와 가문 초대 번주인 호소카와 다다토시(1586-1641)와 호소카와 시게카타(1721-1785)입니다. 이외에도 호소카와 모리히사(1839-1893)까지의 11 대와 함께 다다오키의 아내이자 가톨릭교의 신자 호소카와 가라샤를 신으로 모시고 있습니다. 이 정원은 호소카와 가문의 연고지라는 이유에서 신사 부지로 선정되었습니다.

손 씻는 용으로 아소산의 복수인 '장수의 물'을 담은 돌그릇과 본래 17 세기 초에 호소카와 다다토시의 분재에서 자랐다고 하는 크고 화려한 '오엽송'은 놓쳐서는 안 될 볼거리입니다. 2016 년에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신사의 돌기둥 문인 도리이 3 개 중 1 개가 무너졌으며 나머지 2 개는 기둥에 균열이 발생했습니다. 이후 3 개의 도리이 모두 목조로 재건축되었습니다.